진주·사천·통영 등 7개 시군 조계종 연합체 출범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 2월 23일 법회 봉행

31개 사찰 모여 연합회 형성
남북내륙철도 생활권도 대비
현응 스님 "해인사도 지원"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남부지역 조계종 사찰의 연합체가 탄생했다. 해인사 말사인 진주 의곡사(주지 법연)는 2월 23일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등 7개 시·군 지역 소재 사찰을 모은 조계종 경남남부사찰연합회 출범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출범 법회는 본사인 해인사를 포함해 지역사찰 스님들과 지역 기관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통영 두타사 자용 스님), 연합회장 법연 스님 인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치사, 조규일 진주시장 축사, 국회의원 축사, 공지사항, 사홍서원, 기념촬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 출범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원로 선용 스님 , 다주 여연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해인사 스님들과 연합회 회장 법연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주지 스님, 조규일 진주시장,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정호 강민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 남부지역 사찰 스님들이 활발한 연합회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는 해인사 말사 31개 사찰이 참여해 사찰간 소통과 친목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불교전통문화 선양에 나선다.

법회에 앞서 진주 의곡사 대웅전에서는 사전모임이 열려 임원진 구성과 정관 논의가 진행됐다. 회장은 법연 스님으로, 권역별 총무는 혜찬, 재경, 자용 스님이, 총무간사는 성윤 스님, 재무간사는 재정 스님, 사회문화간사는 원호 스님이 맡는다.

법연 스님은 "추대로 회장소임을 하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며 "수행력과 원만한 복덕을 가지신 스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줘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포교와 원력으로 정진하는 회원 스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연합회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정서에 맞게 사찰들의 의견을 종합해 연합회 활동을 펼치겠다.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회가 되도록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치사로 "진주시를 중심으로 7개 지역은 향후 긴밀한 소통으로 불법 홍포의 중심권역이 될 것"이라며 "이들 지역 소재 사찰의 연합회 출범에 조계종 사찰과 전국불자들의 관심이 크다. 본사 해인사에서도 지원과 많은 성원으로 발전을 이끌겠다"고 격려했다.

현응 스님은 이어 "진주는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의 혁신도시다. 남쪽으로 사천, 고성의 인접시군과 함께 남부내륙철도의 광역 역세권이 될 것"이라며 "동쪽으로는 함양, 함안, 의령의 가야문화권과 생활권이 연결될 것이다. 공정과 평화가 가득한 풍요로운 불국토를 만들어 달라"고 발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남부사찰연합회가 지역포교를 통해 지역발전과 불교전통문화 선양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식 봉행

19일 전주 화엄불교대학 33기 졸업
20일 전북·수현불교대학 행사 진행
코로나 속 학사 일정 진행해 졸업식



전북불교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개교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졸업식을 봉행했다.

전주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금산사 주지)은 2월 19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3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졸업생들과 최소한의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봉행됐다.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학장 일원 스님을 비롯해 흥복사 주지 공해 스님, 정수사 주지 효진 스님, 보현사 총무 우림 스님, 금산사 재무 여찬 스님 등 지도교수들과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안준아 회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김용수 단장, 금산사신도회 하유호 부회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학장 일원 스님은 졸업식사에서 "화엄불교대학의 전 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졸업하는 33기 졸업생 여러분은 여래의 전도사"라며 "앞으로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처님을 대신하여 이웃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사운영에 공로가 큰 이지남 학생회장이 포교원장상을, 허덕례, 양옥순 불자가 학장상을 수상했으며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도 2월 20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제34회 불교학과 및 제29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34기 34명, 법사과 29기 14명이 졸업했으며 전법사 고시를 통과한 최양열 학인 등 6명도 전법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사를 통해 "불교에서 졸업은 업(業)을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며 "몸과 마음으로 지은 업을 소멸하는 참다운 졸업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학장은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춘다"며 "공부를 마쳤다는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졸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노영숙, 법사과 이미숙·최홍숙 학인 등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금산사가 전주혁신도시에 개원한 수현사 불교대학도 20일 4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날 졸업식에는 학장 일원 스님과 지도교수, 운영진,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학장 일원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석가여래 부처님은 전법선언에서 혼자서 가라, 당당하게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셨다"며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수현사의 신도로 이끌길 바란다. 부처님 말씀이 주는 감동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도심포교·지역전법 미래 밝혀

빛고을포교원 창건 100일 간담회 개최



광주지역 도심 포교의 원력으로 창건된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2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개원 100일, 지역전법의 가능성 모색' 설명회를 가졌다.

주지 연성 스님은 이날 "지역포교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무엇보다도 광주광산지역 불자들이 기도와 불교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느꼈다. 100일간의 기점으로 그동안 갖추어 온 기반 위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향후 본격적으로 빛고을불교대학 강좌를 열 계획"이라며 "요가, 민요, 다도 등 문화강좌를 비롯해 명상 등 수행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5일 개강하는 제1기 빛고을불교대학(교학처장 이동배)은 주·야간 각각 25명 정원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천수경, 반야심경 △불교문화답사, 템플스테이 등 교학과 신행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동배 교학처장(정광중 교장)은 "교리와 신행을 겸비한 심도 깊은 교육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화엄사 답사와 체험 등 특색있는 내용을 더해 심화과정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성 스님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도 3월 개강을 진행한다. 요가반(강사 유민아), 민요반(강사 방윤수), 다도반(강사 정옥련) 등 모집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스님은 또 공단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명상과 지역민들의 마을 잔치도 열 생각이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원로의원에 도영 대종사 추천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2월 20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2022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서는 2021년 교구예결산 보고, 승려복지기금 배정심의의 건, 기후변화 대응 결의문 채택, 원로의원 추천의 건, 대종사 추천의 건 등이 논의됐다. 참석 사부대중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생명살림 사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로의원 추천의 건에 대한 토의에서는 금산사 회주 도영 대종사를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대종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도원 스님 등 8명의 스님을 추천하기로 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와 태공문도회를 중심으로 '전북불교백년대계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문도와 교구,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전북지역 불교혁신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발심에서 열반까지 보장하는 공동체적 교구운영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의성 고운사, 탄소중립 실천선언



의성 고운사는 2월 22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71차 교구종회를 열고 '제16교구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선언'을 결의했다.

이날 고운사 대중들은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생명살림 사상으로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밖에 조계종 유지재단 소속 복지시설을 고운복지재단 설립 후 이관하고 지역 적합 복지시설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의성 고운사 산하 복지시설 모범직원 표창장 수여 및 우수사찰 시상식도 개최했다. 이날 수여 및 시상식에는 고운사 본말사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영주 비로사(주지 성공), 모선암(주지 원세), 황룡사(주지 정현) 등이 우수사찰로 선정돼 표창장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또 산하복지시설 모범직원 10여 명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됐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하복지시설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창군4H연합회, 사회복지관에 쌀 기부



고창군4-H연합회는 2월 21일 고창군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에 '사랑의 쌀' 590kg(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 2월 고창군4-H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박나현 회장의 취임을 기념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쌀이다. 전달된 쌀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나현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청년 농업인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고창 농업을 이끌어가는 영농리더로서 지역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한결같은 나눔 행보에 동행해 주는 고창군4-H연합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4-H연합회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동안 사랑의 쌀을 기부하여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안국사불교대학 1기 졸업식 개최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주지 법본)는 2월 24일 안국사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법본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통도사 기획국장 혜명 스님, 호법국장 천주 스님. 안국사 신임주지 성오 스님. 정법사 부주지 송정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권경만 의창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에 이어 법본 스님 이임 및 성오 스님 취임도 함께 진행됐다.

법본 스님은 "명실상부한 창원 최고 사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여기 계신 사부대중 신심이 한곳으로 모여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한 법본 스님 모습을 보며 원력을 다시 높여본다. 스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도솔암, 석가모니부처님 점안



밀양 도솔암은 2월 19일 도솔암 대웅전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도솔암 주지 덕산 스님, 심진 스님 등 지역스님과 BTN불교방송합창단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덕산 스님은 "도솔암에 온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불심으로 인해 함께 발전하고 정진하고 있다"며 "법당중창 불사 3년으로 3층에는 법당, 2층에는 명상센터, 1층은 한방병원으로 계획 중이다.

불사 성만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심포교의 중심지 역할을 도솔암이 하게 될 것"이라고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심진 스님은 "노래로 불교를 포교하는 스님으로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불자들이 밝은 마음으로 봉사, 부처님 제자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제자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구례군가족센터, 지역아동과 장학금 전달



구례군가족센터(센터장 도운)는 2월 24일 구례지역 내 다문화가정 대학 신입생 6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구례 사성암(주지 우석)과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에서 후원했다.

우석 스님은 전달식에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이제 23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역량을 발휘해서 빛나는 대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구례군가족센터는 이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서 주관하고, KB국민카드가 후원하는 '2022학년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에도 선정돼 4명의 아동에게 책가방세트와 학용품세트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